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결정사안】

영동군 황간장터에서도 대규모 3.1독립 만세운동이 있었고 군중 앞에서 만세를 주창하던 김예태를 일본헌병이 옷옷을 벗긴 뒤 포승(捕繩)한 채 잡아갔다고 하는데, 이런 김예태의 황간장터 만세운동 주도사실을 밝혀 달라는 신청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김예태가 황간(黃澗)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철만의 증언이 있었으나 신청인, 참고인, 전문연구자, 향토사학자 및 황간지역에서 나고 자란 고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추가 증언 및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2. 문헌자료(文獻資料)의 분석을 통해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을 가능성과 김예태가 참여했을 개연성은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황간장터 만세운동 여부와 이 만세운동을 김예태가 주도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3. 다만 『시대일보』 등 1925~26년도 신문기사에 김예태와 그 형제들이 황간 청년회 간부로 등장하는데다, 김예태는 ‘일본 순사폭행죄’로, 그의 형 김의태는 일본인 폭행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문과 1920~30년대에 걸쳐 황간 및 영동지역의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을 주도한 추교경·최관홍·손순홍과 함께 활동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김예태와 그 형제들이 황간지역의 청년운동에 참여했음은 인정된다.

【전 문】

【사 건】 가-25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신청인】 김초미

【결정일】 2006. 12. 5.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사건접수 및 처리

- 사건접수 : 2005. 12. 5.
- 조사개시결정일 : 2006. 4. 25.

2. 신청내용

이 사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장터에서도 대규모 만세운동이 있었고, 군복 차림을 한 김예태가 군중 앞에서 독립만세를 주창하였으며, 일본 헌병이 김예태를 붙잡아 옷옷을 벗긴 뒤 포승한 채 잡아갔다고 하는 사건으로, 신청인 김초미가 아버지의 3·1운동을 규명하여 독립유공자로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II. 조사의 근거와 목적

1. 조사의 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진실규명의 범위 중 하나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이 “항일독립운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이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1919년 3·1운동 당시 김예태가 충북 영동군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여부를 규명하여, 사실일 경우 기본법 제4장(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이 정한 바와 같이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조사의 목적

예비조사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김예태가 황간청년회 간부를 역임한 사실이 『시대일보』 등 당시 신문기사에 등장하고, 그의 형제들도 황간청년회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황간장터 만세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황간면, 나아가 영동군 전체의 3·1운동을 총체적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그동안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황간면, 나아가 영동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및 청년운동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이 중앙 중심 또는 지도부 위주로 연구·서술되어, 각 지역에서 펼쳐진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묻히거나 중요한 사실이 간과된 경우가 많았는데, 황간면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복원하여 균형 있게 조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Ⅲ. 진실규명 과제 및 쟁점

1. 황간장터 만세운동 존재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과연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영동의 학산면, 양산면, 그리고 황간면과 바로 인접해 있는 매곡면, 추풍령면 등에서는 3월말부터 4월초에 걸쳐 만세운동이 연이어 전개되었다. 또한 황간면에서는 추풍령에서 이어지는 경부선 연선을 따라 이웃 매곡면, 황금면(현 추풍령면)에서와 같이 황간역 앞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황간장터의 만세운동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다.

2. 김예태의 주도적 참여 여부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다면 과연 김예태는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했을까 하는 점이다. 김예태가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 역시 이 칠만의 증언 외에는 입증할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¹⁾ 다만 김예태의 조카 김명

1) 지역 특히 면단위의 항일독립운동을 밝히는 데 가장 큰 관건은 현장기록(증언)과 문헌자료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가이다.

애(김지태의 딸) 등의 진술에 의하면, 김예태는 지역 씨름대회에서 우승하여 황소를 탈 정도로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으며, 김예태의 아버지가 참봉을 지냈고 광산을 관리하고 일꾼을 둘 정도로 집안이 부유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예태의 집안은 황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예태의 형인 김의태가 1918년 9월 일본인 나카야마(中山喜之助)를 폭행하여 징역 6월형에 처해진다.²⁾ 이와 같은 점이 김예태가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했음을 입증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3·1운동이 발발하기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황간청년회 활동

3·1운동 이후 김예태의 청년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당시 신문 및 각종 문헌자료에 의하면 김예태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1925~26년 황간청년회 간부로 활동한 사실을 알 수 있고,³⁾ 1926년 판결문(형공 259호)에 김예태와 황간청년회 간부 추교경·진소봉이 함께 순사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IV. 조사 방법 및 경과

1. 조사 방법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김예태가 이 만세운동에 주도적

2) 「판결 1918년 형공 제483·484호」, 공주지방법원, 김응규·김홍식·김의태에 대한 판결문 및 해제 참조.

3) 『조선일보』(1925. 3. 27.) 황간청년회 창립총회에서 김예태의 형 김의태, 동생 김지태가 간부로 선출되고 있고, 『동아일보』(1925. 4. 15.)에서도 청년회 야학교사로 활동하던 김지태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언 및 자료 확보를 위해,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신청인, 참고인, 전문가 면담, 실지조사 등을 통해 김예태의 황간장터 만세운동, 더 나아가 영동지역의 청년운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관련 자료가 소장된 기관에 관련 사실을 검색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각 대학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한 검색과 조사관의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국외의 경우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국회도서관, 국립공문서관, 방위청 등의 자료를 검색·조사하였다. 문헌자료 조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목록은 참고 문헌으로 정리해 두었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 및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였다. 광복 60주년 기념 독립운동사대계 충청지방3.1운동사 필자인 김진호, 영동지역 농민운동을 연구한 바 있으며 현재 국가기록원에 근무하는 강호출에게 자문을 구했다. 신청인 김초미의 진술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참고인 진술조사는 김예태의 조카 김명애(김지태의 딸)와 영동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추교경·손순홍·최관홍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향토사학자 김기현·안병찬·김동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으며, 황간 실지조사를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 조사 경과

각 신문 및 문헌자료 조사와 신청인, 참고인 진술조사, 전문가 면담, 그리고 황간 실지조사 등 황간장터 만세운동에 대한 주요조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⁴⁾

4)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사건조사 일지 참조.

- '06. 4. 25. 황간장터만세운동에 관한 자료 수집
 - 문헌자료, 신문, 잡지기사 등을 통해 규명대상자 김예태(金禮泰)를 비롯 영동과 황간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 검토
- '06. 5. 4. 신청인 김초미(金初美) 면담 조사
- '06. 5. 8. 황간장터 만세운동 관련 제1차 실지조사
 - 김예태의 조카 김영옥, 영동군지 집필위원 안동대 등 면담.
 - 김예태의 만세운동을 증언한 이철만을 통해 당시 상황과 기사 내용의 확인 및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고령(96세)으로 타인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람(김영옥)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등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
- '06. 5. 15. 1926년 형공(刑控) 제259호⁵⁾ 분석
 - 김예태, 진소봉(陳小奉), 추교경(秋敎慶)에 대한 판결문
- '06. 5. 22. 후손들 소재 파악
 - 김의태의 아들 김영원, 김용태의 아들 김영호와 통화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없음
- '06. 5. 23. 『철도연선요람』, 『충북요람』 등을 통해 영동지역 및 황간 지역의물류흐름, 인구 등 조사
- '06. 5. 25. 소요관계 서류나 독립운동 기록 등을 통한 황간 지역 만세운동 파악
- '06. 5. 25. 김진호(광복60주년기념 독립운동사대계 충청지방3.1운동사 필자)-강호출(영동지역농민운동연구, 국가기록원) 자문
- '06. 5. 29. 김예태의 조카 김명애(김지태의 딸) 자택 방문 조사

5) <별첨 2> 김예태 판결문 참조

- 아버지 김지태가 야학에서 가르칠 때 같이 따라다녔다고 하며, 김에태가 덩치가 크고 인물이 좋았으며 관내 씨름대회에서 황소를 타기도 했다고 함
- 황간에서의 만세운동에 대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함
- '06. 6. 1. 신청인 김초미 면담 조사
- '06. 6. 12. 손순홍, 추교경, 최관홍의 후손들 면담
- '06. 7. 12 ~ 7. 14. 2차 황간실지조사
- 향토사학자, 황간지역 고령자 면담 등

V. 조사결과

1. 황간장터 만세운동 존재 여부

충북의 3·1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영동군과 음성군의 시위를 들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지만 격렬하게 전개되었다.⁶⁾ 영동군의 3·1운동 상황을 <그림 1> 과 <표 1>⁷⁾로 정리해 보았다. 영동군에서는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도합 16회의 만세운동이 연이어 전개되었으며, 황간면에 인접한 추풍령에서는 4차례, 매곡면에서는 3차례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영동지역의 3·1운동은 3월 25일 학산면에서 영동~무주간 도로공사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에 의해 가장 먼저 전개되었으며, 이웃 양산면 사람들이 합세하였다. 그 다음으로 3월 29~30일 영동면에서 발생하였고, 이어 3월 31일 추풍령 정거장, 황금면, 4월 1일 황간역 앞산⁸⁾, 4월 2일 매곡면 순으로 만세운동이 전

6)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편, 1995, 『3·1운동』 94쪽

7) 이 표는 『독립운동사』 91~96쪽, 『영동군지』 147~155쪽 및 각종 소요관계 서류를 정리한 것이다.

개되었다.

그리고 4월 3일 서산리 장터, 양강면 경찰 주재소 습격, 4월 4일 영동장터로 이어지는 등, 영동지역 역시 다수군중이 모이는 장터·역전 등에서의 만세운동이 눈에 띄고, 경찰주재소를 습격한다거나 면사무소 앞에서 계획적으로 봉기하는 점 등이 당시 전개된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흐름과 같다.

<그림 1> 영동지역 3·1운동 발생지역과 순서



- 8) 4월 1일 황간면 황간역 앞산에서 횃불을 들고 수백 명의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이때 예배당에서도 종소리를 신호로 예수교인들이 집결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고 한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독립운동사 제3권 삼일운동사(하)』, 고려서림, 94쪽).

<표 1> 영동지역 3·1운동 발생지역과 내용

일시	지역	내용
3.25, 3.28	학산면	영동~무주간 도로공사 강제노역 및 뽕나무 묘목 강제배부 등에 반발하여 만세운동 전개(영동군 최초)
3.29	학산면	서산경찰주재소 습격
3.30	학산면 서산리	영동~무주 간 도로공사 노역자들이 양산면 사람들과 함께 만세운동 전개. 200여명의 군중이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기물 파괴, 해산
3.29, 3.30	영동면	200여명의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 경찰폭행 하사 이하 10명 동원하여 해산
3.31	추풍령	추풍령 정거장에서 만세운동
	추풍령	수백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정거장에서 만세운동
4.1	황간면	황간역 앞산에서 수백명의 군중이 횃불을 들고 만세운동을 전개. 교인들도 예배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만세운동에 참가
4.2	매곡면	만세운동
4.3	학산면 서산리	서산리 장터 만세운동. 300여 명의 군중이 순사주재소 및 면사무소를 습격. 하사 이하 5명 동원하여 진압. 사상자 10명
	매곡면	노천리에서 군중 100여명 만세운동
	양강면	괴목리 경찰주재소 앞에서 만세운동. 2천여 명이 만세운동, 체포검속 8명
	영동면	2천여 명의 군중이 순사주재소를 습격
4.4	매곡면	군중 800여명 면사무소에서 만세운동
	영동면	영동장터
4.5	추풍령	추풍령 헌병분견소 창고 방화로 전소
4.6	추풍령	300여명 추풍령 분견소 진입. 대전에서 하사 이하 10명을 파견하여 주모자 4명 체포

이상에서와 같이 진실규명 과제인 황간장터 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여러 정황상 황간장터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 위의 <그림 1>과 <표 1>에서 보았듯이 4월 1일 황간역 앞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사실과 “4월 2일 상오 11시경 매곡면의 밤나무 양묘장 작업을 이용하여 면민 약 100여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일으켜 면사무소에 쇄도하여 면장과 면직원을 설득하여 독립만세를 선창케 하였다. 또 이날은 이웃면 황간읍의 장날이었는데, 5시경 시위행렬은 황간으로 향하였으나 황간장터는 적에 의해 철시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기록⁹⁾에 의하면, 황간장터에서 모여 있던 사람들이 강제로 해산당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동군에서 황간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인 지위도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철도연선요람』¹⁰⁾에 의하면, 황간의 경제상황은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금강 상류 초강(草江)이 동서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으나 경지가 극히 빈약하여 농산물로서는 쌀·보리 각 7천여석, 콩류 4천석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목탄 1만2천관(貫), 흑연 약 6천톤이 최대 발송화물이며, 쌀·흑연은 부산에 한해서 발송되었다. 도착화물은 조, 콩, 술지게미, 소금과 잡곡(粟·豆·粳)이 주된 것이며, 총수량의 약 8할을 점하고 매월 2, 7일에서는 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되었다. 인구는 일본인 48호 139명, 조선인 1,625호 8,364명¹¹⁾이며, 교육기관과 학생 수는 소학교 60명, 보통학교 385명이고, 그 외 금융조합, 우편소, 여관 등이 있었다.

이처럼 황간면은 금융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등, 물류의 흐름이나 인구·학생 수 등의 상황으로 봐서 이웃 추풍령 보다 번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흑

9) 『독립운동사』 94쪽

10) 『조선철도연선요람』 169~178쪽

11) 황간에 비해 추풍령의 인구는 일본인 30호 101명, 조선인 995호 5,399명으로 적다.

연 운반 차량을 둘러싸고 일본인과 마찰이 벌어지는 김의태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물을 중심으로 한 물류의 흐름이 많았다. 경북 상주에서 열차를 이용할 경우나 흑연 등 광물을 운송할 때 황간역을 이용하였다고 하므로 황간이 상주·김천 등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이웃 추풍령이나 매곡면 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²⁾ 즉 황간면은 물류의 중심지로 사람과 물자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만세운동이 전개되기 좋은 장소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황간장터의 만세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만세운동과 관련된 각종 재판기록에도 학산면, 양강면, 매곡면 사람들의 기록은 보이나 황간면 사람들의 기록은 없다.

2. 김예태의 주도적 참여 여부

1) 신청인 김초미 진술조사(2차례)¹³⁾

제1차 면담조사 결과, 신청인 김초미는 아버지 김예태가 일본에서 낳은 딸로 20세 무렵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이후 북한으로 넘어가서 살았다고 하며, 김예태가 일본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다. 다만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다, 김예태가 의병활동을 했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의문점이 많았다.

그리고 제2차 면담조사 결과, 김예태가 벌였다는 황간장터에서의 만세운동과 이후의 항일독립운동, 도일(渡日) 경위와 북한에서의 활동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일용노동을 하고, 북한에서는 배급받은 물품

12) 『조선철도연선요람』은 1927년 기록이어서 1919년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면세를 비교해 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또한 1925년 통계자료에 보면 이들 지역인 구는 황간면 8,646명, 황금면 5,654명, 영동면 12,280명으로 나와 있다.

13) 제1차 면담조사(2006.5.4), 제2차 면담조사(2006.6.1) 제1차, 2차 김초미 진술조서 참조

으로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등 특기할 만한 진술이 없었으며,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만세운동과 도일 전후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2) 참고인 진술조사

참고인 진술조사는 인척인 김명애¹⁴⁾와 일제시기 영동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던 추교경·손순홍·최관홍의 후손들과 그 외 영동지역사에 대해 밝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고인 김명애는 아버지 김지태가 야학에서 가르칠 때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였으나, 황간장터에서의 만세운동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김예태에 대해서는 체격이 건장하고 인물이 좋았으며, 지역 씨름대회에서 우승하여 황소를 타기도 했으며, 집안이 덕대(광산 관리)를 해서인지 꽤 부유했다고 진술하였다. 김명애는 황간의 김영옥보다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아버지 김지태가 해방 전(1944년) 사망했고, 19세 때 황간을 떠난 이유 등으로 인해 결정적인 증언을 들을 수가 없었다.

또한 황간의 만세운동에 대해 듣기 위해 영동군 지역사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정은용과 전화로 통화했으나, 황간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¹⁵⁾.

나아가 일제시기 영동지역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쳤던 운동가들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먼저, 손순홍¹⁶⁾의 아들 손경호는 3·1운동에 관한 자료를 보지 못했고 들은 기억도 없으며, 김예태와 그 외 당시의 기록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¹⁷⁾. 추교경¹⁸⁾의 아들 추정길은 3·1운동에

14) 김예태의 동생인 김지태의 딸. 참고인 면담조사(2006. 5. 29.)

15) 참고인 전화통화(2006. 6. 2.)

16) 1926년 황간청년회 가입하여 사회운동 전개. 1995년 건국훈장에족장 추서

17) 참고인 전화통화(2006. 6. 12.)

대해들은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¹⁹⁾ 최판홍²⁰⁾의 후손은 일가족이 모두 월북하여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3) 황간 실지조사

(1) 제1차 황간 실지조사 결과²¹⁾

황간역 부근에서 신청인 김초미의 사촌오빠이자 김예태의 조카 김영옥과전면장 출신 유동열, 『영동군지』 편찬위원 안병찬 등에게 만세운동에 관한 증언을 청취한 결과, 황간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증언할 만한 사람도 생존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옥은 동향출신인 이칠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만 알고 있을 뿐, 김예태가 헌병에 끌려간 뒤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가령 체포되어 금방 풀려났는지 옥살이를 했는지 언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등에 대한 진술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영동신문』 1994년 8월 22일자 김예태의 만세운동에 관한 기사내용 확인을 위해 영동신문사를 방문하여 편집장 박장근과 면담한 결과, 신문의 기사는 오로지 이칠만의 증언에 의해 재구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김예태의 만세운동을 증언한 이칠만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고령으로 인하여 타인의 말을 알아듣지도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등 면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8) <표 2> 3·1운동 이후 황간 및 영동지역의 항일독립운동과 『시대일보』 (1926. 1. 12.), 김예태의 판결문 등 참조

19) 참고인 전화통화(2006. 6. 22.)

20) <표 2> 3·1운동 이후 황간 및 영동지역 사회운동 상황과 『시대일보』 (1926. 1. 12.), 『조선일보』 (1925. 3. 27.) 등 참조

21) 제1차 황간 실지조사(2006. 5. 8.). 실지조사 보고서 참조

(2) 제2차 황간 실지조사 결과²²⁾

실지조사를 통해 1920년 이전 출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황간장터 만세운동에 관한 것은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²³⁾

향토사학자 김기현(영동군지 집필위원), 김동대(영동군지 집필위원), 안병찬(전 예총 지부장, 영동군지 집필위원)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통해 황간지역의 만세운동의 경우 자료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자료발굴도 어려운 상황이며, 영동군지에 실린 내용 등도 구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향토사학자와의 면담에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특히 신흥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좌익사상 및 그 활동이 심했던 곳으로,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도 소실되었다고 했다.

이런 의견은 향토사학자 뿐만 아니라, 제1차·제2차 황간 실지조사에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즉 여러 사건들을 겪고 피해를 입게 되자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생겼고, 그러는 사이 점차 사실 자체도 잊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지조사에서는 김예태의 출신 학교(현 황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이후 행적을 조사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을 찾을 수 없었고, 면사무소, 영동경찰서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게다가 3.1운동관련 전문가 김진호, 강호출 등의 자문결과도 마찬가지였다.

22) 제2차 황간 실지조사(2006. 7. 12.~14.). 실지조사 보고서 참조.

김희관(당 87세), 이병두(당 86세), 고흥용(당 85세) 외 85세 이상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23) 영동지역의 3.1운동이나 청년활동 자체는 그동안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예를 들어 강호출의 「식민지시대 충북영동지역 농민운동연구」와 같은 논문도 장준의 판결문(형공 제125, 269호)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자체가 빈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김예태가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철만의 구체적인 증언과²⁴⁾ 신청인, 참고인, 전문가, 향토사학자 및 황간 지역에서 나고 자란 고령자들과의 면담·조사, 김예태의 인물됨과 집안내력, 황간면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황간장터에도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여기에 김예태가 참여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언과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황간청년회 활동

1) 김예태와 그 형제들의 활동사항²⁵⁾

24) 이철만(당 96세)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장터에 군중들이 많았는데 젊은이들이 장터를 돌며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한다”고 외치며 상인과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그 후 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헌병들이 말을 타거나 도보로 나타나 군중들을 해산시켰으며 김예태를 붙잡아 포승한 채 잡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영동신문』 1994.8.22)

25) 청년운동관련 주요기사

① 『조선일보』 1925.3.27 “황간청년창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유지(有志)청년 10여명의 발기로 지난 24일 오후 1시에 황간 구(舊)군청공가에서 황간청년회 창립총회를 개최. 다수의 회원이 정각 전부터 모여 차경곤(車敬坤)씨 사회, 同氏의 열렬한 취지 설명과 의미가 심원한 홍순갑(洪順甲)씨의 내빈축사가 있는 후에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6시에 폐회. 피선의원은 회장 차경곤(車敬坤), 부회장 한성동(韓聖東), 총무 최판흥(崔判興), 서무부 진소봉(陳小奉) 김의태(金義泰), 재무부 박기홍(朴基洪) 안수금(安洙今), 교양부 박정근(朴貞根), 체육부 김명환(金明煥) 백운호(白雲浩), 연예(演藝)부 정성(鄭成) 김지태(金智泰)

② 『동아일보』 1925. 4. 15. “황간에 노동야학 당지 청년회사업으로”

충북 영동군 황간청년회에서는 오는 15일부터 노동야학을 개시하는데 제1부 제2부로 나누어 각부에 20명씩 약40명을 모집하는 중인데, 제1부는 보통학교 1~2학년 정도로 제2부는 3~4년 정도로 정하여 교수는 차경곤(車敬坤), 김지태(金智泰) 양씨가 강사로 결정

③ 『시대일보』 1926. 1. 12. “황간청년총회”

황간임시총회에서는 한층 업무를 혁신하기 위하여 9일 오후 8시부터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결정한 후 종래까지 회장제로 하던 것을 위원제로 개정하였는데 신임위원은 좌기(左記)와 같다. 위원 총무부 최진(崔鎭), 사무부 김예태(金禮泰), 교양부 장하익(張夏翊) 차경곤(車敬坤), 재무부 추교경(秋敎慶) (*최진은 최판흥(崔判興)의 다른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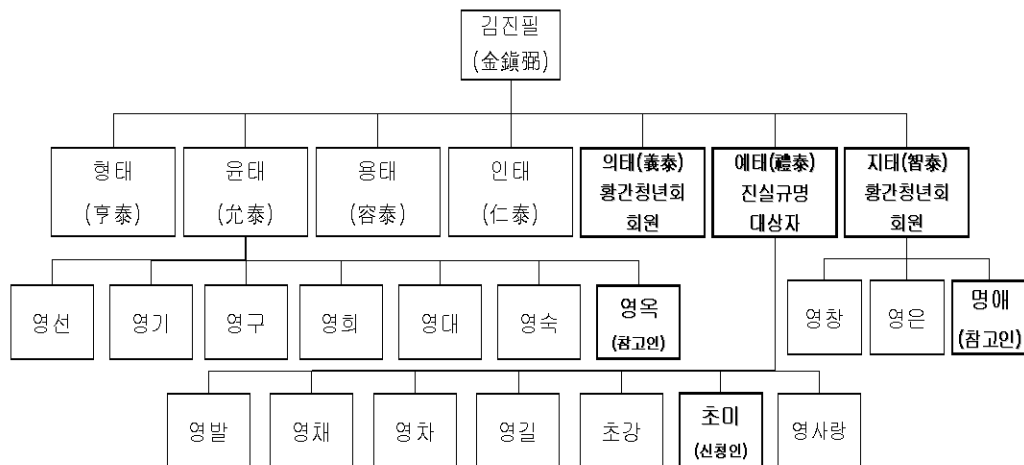
④ 『동아일보』 1930. 2. 17. “陳某 聲討禁止 시괴불리라고”

충북 영동청년동맹 황간지부(永同靑年同盟 黃澗支部)에서 얼마 전에 그곳 진모(陳某)가

김예태의 만세운동에 관한 문헌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시대일보』 1926년 1월 12일자 기사에 의하면 김예태가 황간청년회의 간부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⁶⁾이보다 앞서 1925년 청년회 간부에 김예태의 형인 김의태(金義泰)와 동생 김지태(金智泰)가 보이고 있고, 그 중 김지태는 노동야학의 강사로 활동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김예태와 그 형제들은 만세운동에도 참여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그 후 황간청년회 활동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형제와 후일 농민조합, 적우동맹, 적우회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던 추교경·최판홍, 그리고 진소봉 등과 같이 활동한 사실로 보아 황간지역의 청년운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김예태의 가계도



동지부를 들어 공공연히 모욕과 중상적 언동을 행하였다하여 사회적으로 철저히 징계 하겠다는 의미로 십삼일 지부회관에서 성토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함은 기보한 바 어니와 지부에서는 그동안 모든 준비를 다하고 지난 십일에 당지 주재소로 집회계출을 하얏는 바 주재소에서는 상부의 명령이 시기가 시기라하여 집회를 일체 금지하라 하얏 스니 도저히 허락할 수 업다는 리유로 성토 강연회를 금지하얏는데 이에 대하여 지부 에서는 다시 그 대책을 강구하리라 한다.

26) 『시대일보』 1926. 1. 12.

2) 김예태의 판결문

1926년 형공 제259호 김예태·추교경·진소봉에 대한 판결문은 순사를 폭행한 죄로 징역 6월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며, 1926년 황간청년회의 간부로 있던 추교경과 김예태의 관련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이 항일독립운동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순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볼 때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진술내용 중 “피고 김예태는 판시한 위안회가 있던 밤, 형이 오노(小野) 조수 때문에 연회장에서 끌려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17일 피고 추교경 등과 함께 황간역으로 가서 역장실에서 오노(小野) 조수에게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도 폭언을 퍼부은 적은 없다”라는 부분에서 볼 때, 김예태가 추교경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진소봉은 황간청년회의 창립멤버이며,²⁷⁾ 『동아일보』 1930년 2월 17일자에 보이는 진모 씨가 진소봉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교경은 영동보통학교 졸업 후 1925년 황간청년회에 가입하여, 야학교 교사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 청년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1926년 1월 12일자 『시대일보』에 의하면 김예태와 같이 황간청년회의 간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26년 7월(재판당시)은 황간청년회의 창립초기로 김예태 및 김예태의 형제들이 청년회 간부로 활동하던 시기였고, 또한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순사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김예태는 적극적이고 열기왕성한 인물로 당시 청년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였다고 볼 수 있다.

27) 『조선일보』 1925. 3. 27.

3) 도일(渡日)까지의 과정

- 1926년 1월 12일 황간청년회 간부(시대일보)
 - 1926년 7월 24일 형공(刑控) 제259호(징역 6월)
 - 1926년 11월 15일 첫째 김영발(金榮發) 출생 : 황간면 신흥리
 - 1927년 10월 5일 둘째 김영채(金榮彩, 일명 영일)출생 : 황간면 신흥리
 - 둘째 출생 신고일 1938년 2월 15일
- ↑
(공백기간)
↓
- 1935년 10월 2일 셋째 김영차(金榮次) 출생
 -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宮城縣 仙台市). 일본인 부인
 - 1937년 4월 14일 넷째 김영길(金榮吉) 출생
 -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宮城縣 仙台市). 인지 신고일 1938년 5월 13일
 - 1940년 7월 26일 다섯째 김초강(金初江) 출생
 -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福島縣 福島市). 일본인 부인
 - 1941년 4월 17일 여섯째 김초미(金初美) 출생
 -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福島縣 福島市).

위의 판결문에 의하면 김예태의 판결일이 1926년 7월 24일로, 징역 6월이면 최소한 1927년 1월 출소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영동의 상황은 1926년 10월에 영동의 5개 청년단체(영동·황간·용화·양강청년회와 영동노동청년회)가 합쳐 영동청년연맹이 조직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1927년 8월 영동청년회 사건이 발생하여 장준·김태수·손순홍·최판홍 등이 치안유지법 위반, 공산당 조직이라고 검거·투옥되었고, 같은 해 9월 3일 충북영동청년회와 '7월회'의 집행위원 장준 외 12명이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3·1운동 이후 영동지역 청년활동은, 계몽적 성격의 단체로 출발했던 황간청

년회가 1924년 7월, '7월회' 조직 이후 사상단체로 변하기 시작, 1926년 영동청년연맹조직, 1927년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에 황간청년회 참가(대표 최진), 1927년 8월 영동청년회 사건, 1929년 영동농민조합 조직, 1931년 적우동맹 조직 등 사상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김예태는 출소한 후 이런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청년회 활동을 그만두었거나, 출소 후 경찰의 감시망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태가 황간을 떠나 일본으로 간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여겨진다.

4) 3·1운동 이후 영동지역 사회운동 상황

다음 <표 2>는 3·1운동 이후 황간 및 영동지역의 사회운동 상황을 『시대일보』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외일보』 등 신문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요약한 것이다. 김예태와 그의 형제들이 황간청년회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발견된다.

<표 2> 3·1운동 이후 황간 및 영동지역 사회운동 상황

연 월 일	활동내용
1920. 8. 또는 1920. 9. 1924. 7.	영동청년회 조직 <장준> 회에 자본가·부르주아계 회원이 증가한다고, 영동청년회 탈퇴, 칠월회 조직(장준이 김두수와 함께 경성에서 전조선청년당대회, 조선노동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 참가 한 후, 영동에 돌아와 조직, 사상문제연구가 주요활동)
1925. 3. 24. ~1925. 4. 9.	<황간청년회 창립총회> 차경곤(회장) 최관홍(총무) 김의태(서무부) 김지태(연예부) 등등
1925. 4. 15.	황간청년회 노동야학 강사가 차경곤, 김지태로 결정
1926. 1. 12.	<황간임시총회> 종래까지 회원제로 하던 것을 위원회로 개정위원으로 총무부 최진, 사무부 김예태, 교양부 장하익, 차경곤, 재무부 추교경

연 월 일	활동내용
1926. 10.	영동청련(靑聯)창립 우천으로 연기 <영동청년연맹 조직> 영동·황간·용화·양강청년회, 영동노동청년회 가입 장준·김태수(영동)·손순홍·최판홍(황간) 등
1927. 8. ~9. 3.	<영동청년회 사건> 치안유지법위반,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이유 장준(영동청년회, 칠월회 집행위원)외 6인 검거 장준(張埈), 김극수(金極洙), 최판홍(崔判興), 김태수(金台洙), 장철(張喆), 추교경(秋敎慶), 이관직(李官植) ※ 영동청년치안유지법위반 공판 예심종결서 내용 “피고 등이 충청북도 영동, 황간, 양강청년회 등에 가입하여 표면에는 순 건하나 이면에는 항상 불순한 언동을 해 관청을 반역하며”(후략)
1929. 2. 14. ~1931. (추정년도)	<영동청년연맹이 영동청년동맹으로 명칭 및 조직변경> 기존 각 지역 청년연맹은 영동청년동맹의 지부형태로 전환(황간지부) 정기대회, 집행위원회 개최 등 활동. 회의 때 불온 연설하면, 임석경관이 자주 잡아감(이의수, 이의찬)
1929. 4. 26. ~1930. 9.	<영동농민조합 조직(영동청년회의 개조해 조직한 단체. 판결문에 의함)> 정기대회, 집행위원회, 강연회 개최 등 활동. 소비조합 조직 1930.5 영동농민조합 황간지부 조직 1931.7 황간지부원 : 김순화, 박개천, 박기철, 방영준, 김완수, 박환영 등
1930. 10. ~1932. 5. 10.	<영동농민조합에서 영동소비조합 조직> 창립 당시 집행부의장 장준 선전문·빼라 살포, 높은 매상과 이익. 하지만 적우회사건과 조합 내 부 정사건으로 해체 ※ 적우회사건 당시 공주에서 재판받을 때 신간회에서 변호사를 파견하 여 무료 변호해 줌
1930. 1. 3.	<영동사회운동자 신년간담회> 신간회영동지회 설치하자는 회의-장준, 김태수, 김극수 등 1930. 2. 21. 신간영동지회 설립집회 경찰이 저지

연 월 일	활동내용
1931. 1. 15.	1931. 2. 20. 신간회 청년동맹 해소가결 <적우동맹 조직 : 공산주의운동 전개가 목적> 김태수(책임비서) 김용찬(정치경제부) 손순홍(선전조직부) 김용각(청년학생부) 이상용(노동농민부) 등등
1932. 2. 17. ~1934. 7. 20.	<영동농민조합사건> 농민조합 조직하여 표면적으로 합법적 운동처럼 하고, 내면으로는 아동부녀자에게까지 공산주의 선전했다는 혐의로 검거 관련인물 : 장준, 최관홍, 추교경, 손순홍, 김태수, 김두수, 김용찬, 이의수, 민공호, 최용근, 민원식

이상에서 제시한 3·1운동 이후 황간 및 영동지역의 사회운동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925년 3월 문화적 신사회를 표방하며 황간청년회를 조직, 그 후 1926년 10월 영동의 5개 단체가 영동청년연맹으로 통합되고, 1929년 2월에는 영동청년연맹이 영동청년동맹으로 바뀌어 기존의 각 지역 청년연맹은 영동청년동맹의 지부형태가 된다.

황간청년회의 최관홍·추교경이 1927년 12월 영동청년회 사건으로 장준 등과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검거되는 것을 볼 때 황간청년회의 운동은 영동청년회 등의 활동과 그 궤를 같이 한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후 영동지역의 운동은 변화를 겪게 된다. 1929년 4월 영동농민조합이 설립되고, 1931년 1월 공산주의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하는 ‘적우동맹’이 조직되었고, 1932년 2월 아동 부녀자에게까지 공산주의 선전을 했다는 혐의로 장준·최관홍·추교경 등이 검거되는 ‘영동농민조합 사건’이 발생하는데, 계몽단체로 출발했던 황간청년회도 이런 과정에서 사상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VI. 결론

황간장터에서 김예태가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철만의 증언이 있었으나 신청인, 참고인, 전문가, 향토사학자 및 황간 지역에서 나고 자란 고령자들과의 면담·조사 결과, 황간장터에서 주목할 만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추가증언을 확보할 수 없었다.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을 가능성과 김예태가 참여했을 개연성은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황간장터의 만세운동 여부와 이 만세운동에 김예태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시대일보』 등 1925~6년도 신문 기사를 통해 김예태와 그의 형제들이 황간청년회 간부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예태는 ‘일본 순사폭행죄’로, 그의 형 김의태는 ‘일본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문과 1920~30년대 황간 및 영동지역의 항일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추교경·최판홍·손순홍과 함께 활동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김예태와 그 형제들이 황간지역의 청년운동에 참여했음은 인정된다.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시대일보』 『영동신문』

단행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독립운동사(제3권: 삼일운동사(하))』, 고려서림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독립운동사자료집13: 3·1운동의 전국상황』,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독립운동사자료집6 : 삼일운동사자료집』, 독립기념관

판결문 : 3·1운동관련

판결 1920년 공 제67호(학산면 만세운동관련 이건양)

판결 1920년 공 제176호(학산면 만세운동관련 전만표)

판결 1920년 공 제308호(학산면 만세운동관련 김재득)

판결 1919년 공 제572호(학산면 만세운동관련 이기영)

판결 1919년 형공 제294호(매곡면 만세운동관련 임봉춘 외 7명)

판결 1919년 형상 제33호(매곡면 만세운동관련 임봉춘 외 7인)

판결 1919년 형공 제49호(양강면 만세운동관련 박중옥, 김용문)

판결 1919년 형공 제491호(학산면 만세운동관련 양봉식)

판결문 : 청년운동 등 3·1운동 이후

판결 1928년 형공 제125호(청년회 활동 관련 장준 외 5인)

판결 1933년 형공 제269호(청년회, 농민운동 관련 장준 외 10인)

국사편찬위원회편, 1991-200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0』,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편, 1991-200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3』, 국사편찬위원회

논저

애국동지원호회, 1956,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원호회

차기벽, 1979, 「식민지독립운동으로서의 3·1운동의 비교론적 고찰」, 『현상과 인식』 3권1호

김진봉, 1982, 『3·1운동』, 민족문화협회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

박경식, 1987, 『조선3·1독립운동』, 고려서림

김진봉, 1987, 「호서지방3·1운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독립기념관 한 국독립
운동사연구소

황부연, 1987, 「충북지방의 3·1운동」, 『충북사학』 제1집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편, 1995, 『3·1운동』, 민문고
 강호출, 1991, 「식민지시대 충북영동지역 농민운동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이정은, 1991, 「3·1운동의 지방확산과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임경희, 1992, 「3·1운동전개에 나타난 농민의 역할」, 충북대석사학위논문
 이창건, 1999, 「3·1운동의 지역별 주도세력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 박사학위논문
 김학훈, 1999, 「영동군 정기시장의 기능특성과 공간구조」, 대한지리학회지 제34권 5호
 박결순, 2000, 「충북지방 독립운동사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5집
 김진봉, 2000, 「호서지방3·1운동의 성격」 『3·1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이병현, 2002, 『3·1운동비사』, 개벽사
 김진호, 2002, 「충남지방3·1운동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충북향토문화연구소, 2003, 『충북향토문화연구』, 上, 下』
 충북학연구소, 2003, 『충북100년 신문기사집성: 1911~1919』
 영동군지편찬위원회, 2004, 『영동군지』, 「제7장 3절 영동의 3.1운동」
 박결순, 2005, 「일제하 충북지방의 독립운동과 그 유산」, 충북학 제7집
 이정은, 2006, 「3.1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 해외문헌

「조선소요사건개람표」, 조선헌병대사령부,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1919.3.1~3.31
 「조선소요사건개람표」, 조선헌병대사령부,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1919.4.1~4.10
 龜岡榮吉 著, 1927, 『조선철도연선요람』, 朝鮮拓植資料調査會
 충청북도 편, 1934, 『忠淸北道要覽』
 佐々木春隆, 1985, 『韓國獨立運動の研究』, 國書刊行會
 市川正明編, 1989, 『三・一獨立運動3』, 조선독립운동별권, 고려서림

<별첨 1> 사건조사 일지

연월일	조 사 내 용
'06. 4. 25.	<황간장터만세운동에 관한 자료 수집> 문서, 신문, 잡지기사 등을 통해 규명대상자 김예태(金禮泰)를 비롯 영동과 황간지역을 중심으로 자료 검토(국내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중앙도서관 등, 국외의 경우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국회도서관, 국립공문서관, 방위청 등의 자료를 검색·조사)
'06. 5. 4.	신청인 김초미(金初美)가 남편 오수룡(吳壽龍)과 함께 본 위원회 방문
'06. 5. 8.	<황간장터 만세운동 관련 제1차 실지조사> 황간역 부근 다방에서 신청인 김초미의 사촌오빠 김영옥과 면담. 전 면장 출신 유동렬 및 영동군지 편찬위원 안병찬 동석. 황간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전해들어왔다고 하나,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증언할 만한 사람들도 생존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함. 김영옥도 김예태가 헌병에 끌려간 뒤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함. 가령 체포되어 금방 풀려났는지 옥살이를 했는지, 언제 일본에 건너갔는지 등에 대한 진술도 전혀 확보할 수 없었음(김영옥은 연좌제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초가 많았던 듯 그에 대한 얘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함). 영동군의 매곡면, 학산면 등의 만세운동으로 검거된 자들의 법원 판결문 등은 보이나 유독 황간면의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공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나 공주지법의 기록이 전부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 제시 현재와는 달리 당시는 황간이 인근지역에서 가장 커서 만세운동도 황간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함. 이 지역이 좌익성향이 강하고 전란 속에 많은 자료들을 없애버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함. 1920년대 한글학회 사건 등이 청장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함. 1994년8월22일자 『영동신문』에 김예태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으므로 기사 내용 확인과 취재기자를 통해 자료를 좀 더 얻기 위해 신문사 방문. 편집장 박장근을 통해, 신문의 기사가 오로지 이철만 옹의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영동신문』 편집장 박장근, 당시 취재기자 박

	금융). 김예태의 만세운동을 증언한 이칠만 용을 통해 당시 상황과 기사 내용의 확인 및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고령(96세)으로 타인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람(김영옥)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등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
'06. 5. 9.	『영동신문』 편집장 박장근과 통화. 추가적인 기록 유무를 확인했으나 특기할 만한 사항 없음. 『시대일보』(1926. 1. 12.) 황간청년회 관련 기사에 김예태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황간청년회 및 더 나아가 영동지역의 청년회나 농민운동 등에 대해 조사. 7형제의 이름 : 형태(亨泰), 윤태(允泰), 용태(容泰), 인태(仁泰), 의태(義泰), 예태(禮泰), 지태(智泰) 현재 지태 외에는 기록을 찾지 못한 상태이나 김예태 형제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일제강점기 영동, 황간 지역 신문기록 및 문서류 검토
'06. 5. 15.	일제 강점기 영동 및 황간 지역 전체적인 상황 파악 (『영동군지』) 1925년 영동군 읍면별 인구 상황, 시장 현황, 경찰 등 <1926년 형공(刑控) 제259호> 김예태, 진소봉(陳小奉), 추교경(秋敎慶)에 대한 판결문(진소봉에 대한 다른 기록은 찾지 못함). 1926년 황간청년회의 간부로 있던 추교경과 김예태의 관련을 추정할 수 있음. 김예태가 다나카(田中)순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처해짐. 김예태의 형 김형태(金亨泰) 등장
'06. 5. 16.	김영옥으로부터 전화. 추교경의 판결문에 김예태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무근으로 확인됨. 숙부에 해당하는 김지태(金智泰)가 이리전문학교를 나와 야학 등에서 활동했다고 함
'06. 5. 17.	<국가기록원 김예태 기록 확인> 형공(刑控) 제259호 외에는 김예태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
'06. 5. 18.	영동의 장터 확인, 영동의 만세운동경로 파악
'06. 5. 19.	『조선일보』(1925. 3. 27.) 황간청년창립 총회기사에 김예태의 형과 동생으로 추정되는 김의태(金義泰), 김지태(金智泰) 등장. 그리고 진소봉, 최관홍(일명 최진) 등도 있으므로 김예태 형제들이 황간청년회에서 주

	도적인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임
'06. 5. 22.	황간의 김영옥과 통화. 후손들 소재 파악, 김의태의 아들 김영원, 김용태의 아들 김영호와 통화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없음
'06. 5. 23.	1900년대 초 『철도연선요람』, 『충북요람』 등을 통해 영동지역 및 황간 지역의 물류흐름, 인구 등 조사
'06. 5. 24.	경부선 면해 있는 지역 조사, 추풍령과 가까운 김천이나 학산면과 가까운 무주 지역 등 조사
'06. 5. 25.	소요관계 서류나 독립운동 기록 등을 통한 황간 지역 만세운동 파악
'06. 5. 25.	<전문가 자문> 김진호(광복60주년기념 독립운동사대계 충청지방3·1운동사 집필위원)·강호출(영동지역 농민운동연구, 국가기록원)
'06. 5. 29.	<김예태의 조카 김명애(김지태의 딸) 자택 방문> 아버지 김지태가 야학에서 가르칠 때 같이 따라다녔다고 함. 황간에서의 만세운동에 대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함. 김예태에 대해서 기억하기로는 덩치가 크고 인물이 좋았으며 관내 씨름대회에서 황소를 타기도 했다고 함. 황간의 김영옥보다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아버지 김지태가 해방 전(44년)사망했고 19세 때 황간을 떠난 것 등 결정적인 증언은 들을 수 없었음
'06. 6. 1.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통화> 김의태에 관한 판결기록이 있음을 확인. 2회 신청인 진술 조사(위원회에서 김초미 부부)
'06. 6. 2.	황간의 만세운동에 대한 것을 듣기 위해 영동의 정은용과 전화통화했으나 황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
'06. 6. 5.	황간지역 만세운동 종합정리
'06. 6. 12.	김예태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청년회활동을 했던 손순홍의 아들 손경호와 통화했으나 3·1운동과 관련한 얘기도 듣지 못했고 자료도 없다고 함

'06. 6. 22.	<김예태와 청년회 활동을 같이 했던 추교경과 최관홍의 후손 추적> 최관홍은 일가족 모두 월북, 후손 추적 불가. 추교경의 아들 추정길과 통화, 3·1운동에 대해 들은 바는 있으나 자료는 전무한상태. 당시 사진이나 기록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06. 6. 26.	황간지역 고령자들을 통해 증언을 듣고자 명단 파악 협조를 황간면에 요청
'06. 6. 27.	지역사에 밝은 향토사학자 물색(영동문화원)
'06. 6. 28.	각 마을의 이장과 통화, 그리고 고령자 중에서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들 파악
'06. 7. 12. (7. 12.~7. 14.)	<2차 황간실지조사> 황간초등학교, 황간면사무소, 황간장터, 황간장터 부근의 마산리, 남성리 일대 고령자 면담
'06. 7. 13.	회평리, 광평리, 금계리 일대 고령자 면담 영동경찰서, 영동정보과학고등학교(구 영동농림학교) 향토사학자 전화
'06. 7. 14.	향토사학자 면담(안병찬, 김기현) 김기현은 갑작스런 부고로 인해 전화로 자문 영동문화원
'06. 7. 18.	출장보고서 작성 및 보고
'06. 8.~	황간장터 만세운동 보고서 작성

〈별첨 2〉 김예태 판결문

大正15년(1926) 刑控 제259호

判決(판결)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農 김예태 27년

同道 同郡 同面 마산리
음식점업 진소봉 26년

同道 同郡 同面 신흥리
農 추교경 21년

김예태, 진소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추교경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大正15년 6월 4일 공주지방법원대전지청에서 언도된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控訴) 신청이 있어 당원(當院)은 조선총독부검사 카사이(笠井 健太郎)의 관여 하에 다음과 같이 심리판결 함.

主文(주문)

피고 김예태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진소봉, 추교경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단 두 사람에게 내린 3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理由(이유)

본 범죄 사실은 원판결소재(原判決所載)와 동일하므로 여기에 인용한다.

증거를 고려하건대 제1의 사실에 의거 당 법정에서 피고 김예태는, 판시한 일시장소에 간 것은 틀림없지만 다나카(田中榮) 순사에 대해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또 피고 진소봉은 판시한 일시장소에 갔더니 피고 김예태가 다나카 순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지만 자기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 다나카에 대한 심문조사 중, 자기는 주임 우에다(上田)부장의 명령으로 판시한 위안회장(慰安會場)의 단속을 위해 갔는데 피고 김예태가 음주로 큰 소리를 치며 폭행하므로 주의를 주었더니 자기의 먹살을 잡고 또 피고 진소봉도 뒤쪽에서 와서 판시한 대로 상해를 입히니 두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증인 오카모토(岡本宋一)에 대한 청취서 중 판시한 일시장소에서 피고 김예태가 다나카 순사에게 폭행하고 피고 진소봉도 이에 가담하여 폭행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지했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및 의사 하라(原)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해 이를 인정했다.

제2의 사실에 의거 당 법정에서 피고 김예태는 판시한 위안회가 있던 밤, 형이 오노(小野) 조수 때문에 연회장에서 끌려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 날 17일 피고 추교경 등과 함께 황간역으로 가서 역장실에서 오노 조수에게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도 폭언을 퍼부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피고 추교경은 자기는 5월 16일 밤, 내선인들 간에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혼자 황간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피고 김예태와 만나 피고의 형 김형태(金亨泰)가 끌려 나간 것에 대해 물었는데 다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타할 만한 기세를 보인 적은 없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증인 하세가와(長谷川健治)의 제1同 청취서(聽取書) 가운데 1926년 5월 17일 오전 9시 40분 경, 자기는 역사무소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 김예태, 추교경 외 2,3명이 와서 오노 조

수에게 전날 밤 역 구내의 연극장에서 김예태의 형을 왜 차 위에서 끌어내렸는지를 따지자 자기는 아니라고 했으나 모두 커다란 곤봉을 들고 협박조로 말했다는 내용을 공술 기재했다.

同 증인 오노에 대한 청취서 중 판시한 위안회 다음날 피고 등이 역 사무실에 와서 자기한테 전날 밤 왜 김예태의 형을 차 위에서 끌어내렸느냐며 곤봉을 들고 대답에 따라서는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또 사법경찰관 정수복(鄭壽福)에 대한 심문조서 중, 자기는 올 5월 17일 피고 두 사람과 함께 황간역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 때 직경 1치(寸) 정도 되는 막대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공술 기재함에 따라 피고 등은 판시한 하세가와 및 오노 등에 대해 공무를 방해한 것을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보건대 피고 김예태의 소행 중, 상해(傷害)는 형법 제204조에,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것은 同法 제95조에 해당하는 바, 이는 일소위수법(一所爲數法) 및 연속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同法 제54조 제1항 前段제55조 제10조에 의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하는 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진소봉의 소행 중, 상해에 관한 점은 형법 제204조에, 공무집행방해는 同法 제95조에 해당하는 바, 위는 일소위수법(一所爲數法)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同法 제54조 제1항 前段제10조에 따라 무거운 상해죄에 해당 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추교경의 소행은 同法제95조 제54조 제1항 前段에 해당하는 바 하세가와 역장에 대한 소행에 따라 소정형(所定刑)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진소봉, 추교경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둘 다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해 主文대로 판결한다. 피고인의 공소는 모두 이유 있다.

大正15년(1926)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형사부

